

후장기 제도 청산으로 회원 권익보호에 앞장



포천채란지부가 지난 16일 사무실을 이전하고 현판식을 가졌다.(좌부터 이보균 본회 경영지도팀장, 류시동 총무, 오세을 이사, 장일광 한국양계농협 감사, 김낙주 지부장, 송복근 동양연지부장, 이천수 전 지부장, 김인배 사무총장)

대한양계협회포천채란지부(지부장 김낙주)가 지난 9월 16일 포천시 영북면에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포천시 이정열 부시장을 비롯, 송복근 동양연지부장, 전명효 포천육계지부장, 김정식, 이천수 전 지부장, 장일광 한국양계농협 감사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공동 구매사업으로 생산비 절감

포천지역에서 사육되는 산란계 마리수는 75개 농가에서 350만수에 달한다. 이중 69개 농가가 회원으로 가입될 만큼 어느 지역보다 단합이 잘 되는 지역이다. 그동안 영북축협에서 사무실을 협조해 주면서 지부를 이끌어 왔으나 장소가 협소해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불편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과감히 탈피를 하고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 이번에 이전한 사무실은 45평으로 회의실은

물론 세미나실까지 구비되어 있어 회원들이 활동하는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을 정도이다.

1989년 포천분회로 모임이 시작된 이후 한때 위기를 맞기도 하였던 포천지부는 지난해 8월 김낙주 지부장이 지부를 살리기 위해 자진해서 지부장직을 맡게 되면서 1년내 당시 800만원의 적자와 30여명의 회원에 머물렀던 것을 다시 흑자로 되돌리고 회원도 두배 이상으로 늘리는 성과를 가져오면서 활기를 띄고 있다.

포천채란지부의 자랑거리는 공동 구매사업을 통해 자체적인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부에서 현재 하고있는 공동 구매사업은 난좌, 노계, 약품, 톱밥, 사료 등으로 회원들의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포천채란지부는 김낙주 회장을 위시하여 윤경호, 신현분 부회장, 김인배 사무총장, 류시동 총무 등의 젊고 추진력 있는 임원을 바탕으로 양계현안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포천시청(시장 박윤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지부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부 사무실을 이전하는데도 8천만원을 쾌척하는가 하면 계란우수성 홍보 행사에도 자리를 마련해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회원들의 권익에 최선

포천채란지부를 이끌고 있는 김낙주 지부장은 지난 1961년 700수로 채란업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15,000수 규모의 채란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규모가 많은 다른 농장들보다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김지부장은 자신있게 말했다. 양계업을 하는 도중 운수업에도 종사해 본 경험이 있는 김



회원들의 권익에 앞장서는 김낙주 지부장

지부장은 한 모임을 이끄는 지부장으로로서가 아닌 같이 채란업을 하는 노동자로서의 마음가짐으로 지부를 이끌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그렇지만 한 모임에 비협조적이고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취하려 드는 회원들이 있을 경우 회원 자격을 과감히 박탈하는 등 다수 회원들의 편익에 서서 일할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신 회원들에게 2만원을 받으면 5만원의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지부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후장기 제도 해결책 마련

현재 포천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후장기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오래전부터 이어온 관행으로 대부분의 회원들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김낙주 지부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이제 후장기 제도를 이 지역에서 뿌리 뽑을 묘안을 찾아냈다. 후장기는 근본적으로 계란이 체화될 경우 쌓여가는 계란을 처리하기 위해 큰 농장들이 덩핑을 하면서 유통을 흐리게 되고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상인들은 생산자들에게 추후 결재라는 명분을 달아 당시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농가들에게 피해를 입혀온 제도인 만큼 체화되는 계란을 우선 처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서 시청, 축협, 협회 등이 연계하여 공동작전을 펼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고 시청과 축협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결과 체화되는 계란은 전량 냉장창고에 비축할 수 있도록 시청과 축협에서 도와주기로 하였으며, 창고에 쌓이는 계란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맡아주기로 하면서 후장기 제도를 없앨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난가를 자체적으로 발표하면서 상인들과의 협상력을 키워나갈 계획도 밝혔다.(정리 | 김동진 차장 dj@poultry.or.kr) **양계**